투데이 칼럼

말의 신비한 능력

김 양 옥

한국스피치 · 면접컨설팅 대표

우리말 가운데 배 아픈데 '어머니의 약손'은 특효약이다.

어머니가 "엄마 손은 약손"하며 배를 쓰다듬어주면 웬만한 배앓이의 고통은 신기하게도 사라진다.

아픈 배를 쓰다듬어 편하게 하는 물리적 치료 효과에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이 주는 최면 효과가 어우러져 복통이 사라진 것이다. 이는 '말'이 갖는 신비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말의 힘'을 믿어왔다.

여러 사람이 「해가사(海歌詞)」라는 노래를 불러 절세의 부인을 구했다거나, '향가'를 지어 불러 '괴성(魁星)'과 '왜병(倭兵)'을 물리쳤다는 이야기 등은 언어의 주술성을 그대로 믿는 고대인의 언어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언어관은 지금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가령, 새해인사의 덕담(德談)으로 "금년에 장가를 갔다지" 혹은 "올해 아들 낳았다지" 등과 같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말하는 것은 말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또는 "말한 대로 된다"와 같은 관용표현을 강조하는 것도 '말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말에는 묘한 힘이 있다. 말이 이끄는 대로 생각이 미치고 또 행동이 따라오게 되니 그 힘을 부정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남을 해치고야 말겠다'는 자기 독백은 자신의 사고를 은연중 그러한 쪽으로 몰고 가 결국은 위험한 행동까지 유발하게 한다.

"나는 정말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나 같은 놈은 이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야", "나는 정말 재수 없는 놈이야"와 같이 자기 비하의 부정적인 말은 정말로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고야 만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행동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또 그 행동의 결과도 부정적이다.

이런 부정적인 말 대신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 "나는 우리 회사에 절대로 필요한 일물이야", "나는 정말 운이 좋아" 등과 같은 긍정의 말을 해보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맑아지고 기운이 산뜻해져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말이 최면을 걸어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는 바가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말의 힘'을 믿고 늘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말한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비관하지 않고 사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최면을 건다.

"이쯤이야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야. 노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와 같이 말이다. 과거 세계권투 헤비급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도 "내 말이 50%, 내 기술이 50%로 세계 왕좌가 되었다"고 회고하였고 같은 노래를 수천 수만번 부르는 가수들도 자기 노래같이 내 인생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윌리암 제임스'가 주장한 "내 말이 내 인생의 결과다"란 것이다.

그러면, 자기 독백은 현실화되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이런 사람은 희망을 주는 기분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고 내 편이 되어 나를 지지해주므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

성공하려면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보고, 또 긍정적으로 말하라. 그래도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큰 소리로 기도하듯 말하라.

절실한 기도는 자기 최면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긍정은 행복을 낳고 부정은 불행을 낳는다는 진리를 깨달아 한번 태어난 세상살이를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독자제언

아직도 숙취운전하세요?

지구대에서 이른 아침 출근길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하다보면 하나 둘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른바 흔히 말하는 숙취운전으로 적발된다.

운전자들은 "전날에 마셨는데 무슨 감지가 디냐, 어이가 없다."

또 다른 운전자는 "당연히 수를 마시고 잤는데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을 텐데 어떻게 취소수치가 나오냐!"라는 말을 당연한 듯 내뱉는다.

운전자들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니 출근길에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위이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숙취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통해서 혈중 알콜올농도가 0.05%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비롯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잠과 별개로 엄연한 음주운전자가 되는 것이다.

경찰청의 알코올 분해소요시간 자료에 따르면 소주 1병(19%)과 생맥주 2천cc를 70kg의 나성을 기준으로 삼아볼 때 알코올해소 시간은 각각 약 4시간 6분 5시간 22분가량의 시간이 걸려야 알코올이 분해되며 또 같은 조건의 남자가 양주(45%) 4잔을 마시면 6시가 28분의 알코올 분해시간이 걸린다.

성별, 몸무게, 개인의 체질 등에 의해 알코올해소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아침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출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맛있는 술과 안주의 유혹에 당해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음주를 스스로 자제할 수 있어야하며 이른 술자리 시가이더라도 과음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본의 아니게 과음을 했다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숙취가 심한 상태로 출근을 해야한다면 당장에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이나 카풀을 이용해 본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안전하게 출근해야 한다.

배준량 순창경찰서 경무과 순경

독자제언

비보호좌회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비보호좌회전이란, 사전적 의미는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다시 말해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직진신호에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한다면? 그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국민에게 전달하고픈 내용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항상 교통사고가 크게 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현장은 자동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고 파편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으며, 운전자들은 크게 다쳐 구급차가 달려오곤 한다는 것.

비보호 좌회전인 만큼 좌회전하는 차량을 교차로의 다른 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보행자들이 좌회전하는 차량을 쉽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운전경력이 상당한 운전자들도 비보호 좌회전의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마치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지판이 있으면 좌회전 차량을 위한 표지판인 마냥 하이패스처럼 바로 좌회전하는 차들이 많은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첫째 직진신호 중 둘째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지 충분히 확인을 하고 안전이 보장되었을 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적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고,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좌회전운전자에게 가해자책임이 돌아가니 올바른 정보와 안전한 운전습관으로 이런 불명예의 가해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 설

전주시의 도시발전 기본 틀 다시 짜기

전주시가 도시 발전 기본 틀을 다시 짜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도시 개발 청사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합리적인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과연 그 기본 틀 다시 짜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전주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러나 전주시의 그같은 발표에 크게 기대가 가지 않는 지금이다. 전주시가 그동안 식언을 한 게 한 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식언이라는 지적에 전주시 관계자들은 뜨끔해야 한다.

전주시의 이번 발언 때문에 다시 또 생각나는 게 있다.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어찌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언론에 보도된 열기가 뜨거워 곧 변화를 보여줄 것 같아 기대가 컸었는데 말이다. 전주시는 전라감영 복원에 속도를 내야 했다. 구도청사를 철거한 이후 주차장으로만 활용되던 감영 터에서 발굴작업을 벌인 것은 분명히 평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너무 싱겁다. 발굴 작업과 보도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까닭이다. 전주시는 얼마 전에도 전라감영복원 재창조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겠지 했는데 그 또한 한 때의 호들갑이었다.

전주시는 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 구도심을 문화와 인권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여태까지 말 잔치에 그치고 있다. 시일이 어느만큼 지났으면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여러 차례 공표했으므로 이제 속도를 내야 한다. 뜸 들이는 식으로 길게 끌지 말라는 당부다. 전주시는 수년 전부터 가장 인간적인 플랜 5G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인간적인 플랜 5G를 위해서 힘차게 작업을 추진했으면 한다. 구도심 활성화 작업이 없이 헛된 울림만 반복해 들려주어서는 안 되겠다.

전주시는 '도시공간 재창조'를 천명했으므로 실천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전주시는 구도심지의 환경이 어떤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선미촌이었던 서노송동 지역만해도 사람이 안 사는 폐가가 많다. 전주시는 문득 문득 생각난듯이 표현 방식을 살짝살짝 바꾸어서 간헐적으로 말해선 안 된다. 이제는 정말이지 구체적인 추진을 보여주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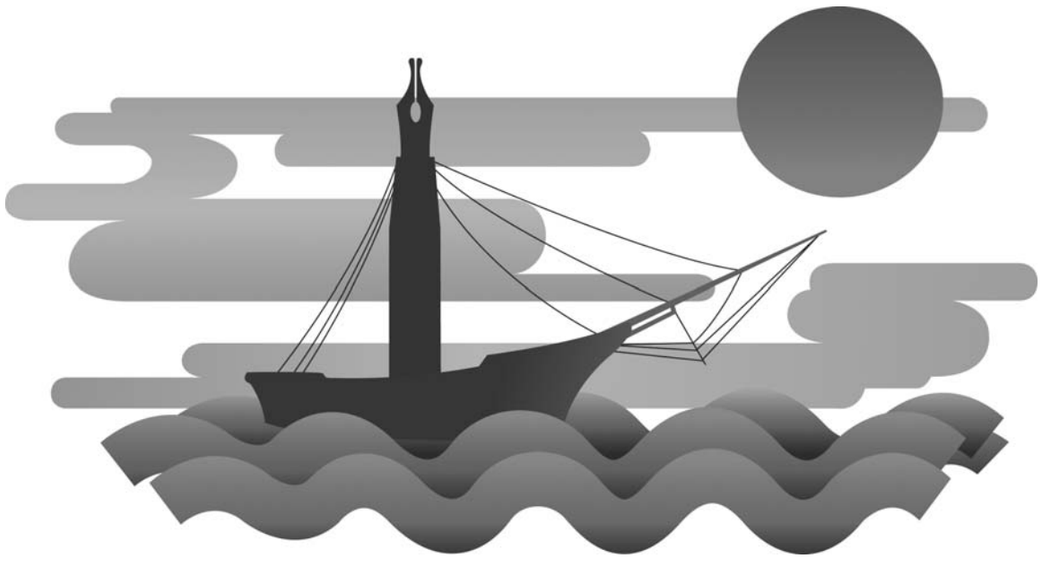
대안은 여유 있을 때나 시도해 볼 일

한국 GM이 물 건너 간 모양새이다. 한 솔밥을 먹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며 협력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회생되기를 염원했던 도민들도 침통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럴 것이다. 여기저기서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며칠 전 전기 상용차 전진기지론이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론이 그렇다. 그러나 그런 발언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나온 것들이라 속절이 없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시급한 것은 불을 끄는 일이다. 실직한 이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 아니냐는 이야기다.

그같은 대안들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나 시도해볼 일이다. 갑자기 급조된 생각들이 금방 현안이 될 리 만무하다. 정부도 사업을 빨리 추진해보라며 예산을 부랴부랴 집행해줄 리 만무하다. 그래서 여기 할 말이 있다. 지역발전을 약속하던 프로젝트 사업들이 어째 이상하다. 지금은 행방이 묘연한 까닭이다. 사업 발굴과 함께 청사진 그리기가 요란했는데 그뿐이라면 곤란하다. 그래서 지난날의 보도가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전북도가 큰사업들을 발굴했던 거 말이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 발굴에 대해서 짚어볼 바가 있다.

지역 발전은 이런저런 대안 찾기나 사업 발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 이같은 지적은 전북도를 책잡으려는 게 아니다.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 사업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도지사와 관계자들의 추진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추진되도록 힘을 실어서 계속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다. 실제 예산이 반영돼야 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되는 거 아니냐고 묻고 싶은 것이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는 항상 똑같다. 그것은 지역의 발전이다. 지역의 발전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기를 도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고용도 안정되기를 도민들은 바라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전북도와 도의회가 군산 GM을 회생시켜야 한다고 지금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째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는다. 도지사와 고위 관계자들은 앞으로 구체적 행보를 보이며 헌걸차게 뛰어야 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